

박주영을 어쩌나...이번엔 발가락 부상

사커 토크

| 홍명보호의 끝없는 고민

허벅지 낫자마자 스트레스성 봉와직염 3주면 회복된다 해도 사실상 시즌 아웃 2년 전 런던올림픽 준비 때와 상황 비슷 경기 부진·출전 감소·부상 악순환 반복

박주영(29·왓포드)이 한국축구에 끊임 없이 고민을 안기고 있다. 수년째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본인도 답답하겠지만, 축구국가대표팀 홍명보(45) 감독의 불편함도 상당하다. 악순환의 고리를 좀처럼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장기 결장에 따른 컨디션 저하와 실전감각 추락은 줄부상으로 이어졌다. 얼마 전까지 허벅지(앞근육 대퇴 사두근) 부상에 시달렸던 그는 최근 오른쪽 두 번째 발가락과 발등 부위의 봉와직염으로 고생하고 있다. 상처에 균이 들어가 염증을 유발하는 봉와직염은 전치 2~3주에 불과해 부상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없지만, 시기가 좋지 않다. 3주 뒤 부상에서 완치된다고 해도 유럽프로축구의 2013~2014시즌이 종료될 무렵이라 사실상 '시즌 아웃'과 다름없다. 3일 극비리에 귀국한 박주영은 현재 대표팀 주치의 송준섭 박사의 관리 하에 통원치료를 받으며 조용히 쉬고 있다.

●봉와직염은 왜 생겼을까?

박주영은 3월 말 허벅지 부상에서 회복돼 실전을 준비하다 봉와직염에 걸렸다.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 왓포드의 미디어담당관 마크 제이미슨은 박주영의 상태를 묻는 스포츠동아의 문에 "허벅지 근육을 다쳤지만 치료 후 완쾌됐다. 그런데 새롭게 발가락 부상이 생겼다. 왓포드에 언제쯤 돌아올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학계에선 통상적으로 "선수는 물론 일반인도 잘 쓰지 않던 근육을 무리하게 쓰면 부상 위험이 크다"고 한다. 박주영의 허벅



박주영(왼쪽)의 부상은 2014브라질월드컵을 앞둔 한국축구대표팀에 적잖은 타격이다. 박주영을 둘러싼 홍명보 대표팀 감독의 고심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지 부상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원소속팀 아스널에서 거둔 결장으로 인해 생체리듬이 떨어진 상태에서 왓포드로 임대돼 실전에 나서기 시작한 데 이어 3월 그리스와의 원정 평가전에 출전하면서 발생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허벅지 부상과 봉와직염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송준섭 박사는 "(박주영의) 봉와직염은 스트레스성"이라고 말했다. 허벅지 부상과 다르다는 것이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박주영이 처한 상황에서 충분히 유추해볼 수 있다. 송 박사는 "지난달 23일 박주영의 치료 문의 연락을 받았다. 상태를 보고, 상처 부위의 딱 찬 고름을 뽑아줄 것을 지시했다. 치료 후 염증 수치를 확인

한 뒤 복귀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브라질월드컵 출전 이상 무, 그러나...

박주영은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6월 개막할 2014브라질월드컵에 나설 대표팀은 5월 12일 소집된다. 23명의 최종 엔트리가 포함된 30명의 선수가 모인다. 이에 앞서 박주영은 대표팀 이케다 세이고 피지컬코치가 마련할 특별 프로그램에 따라 개인훈련을 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데 전념할 전망이다. 2년 전 런던올림픽을 준비할 때도 이케다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일본에서 훈련했다. 그러나 2년 전처럼 반복된 부정

적인 현 상황을 홍명보 감독이 달가워할 수는 없다.

AS모나코(프랑스)에서 펠펠 날던 박주영은 아스널에 입단한 2011~2012시즌 6경기(1골) 출장으로 부진했고, 2012~2013시즌 셀타비고(스페인)에 임대돼 22경기(3골), 올 시즌 왓포드에서 3경기 출전에 그쳤다. 봉와직염에서 완쾌돼 최종 엔트리에 들더라도 자칫 부상이 재발할 수도 있다. 4일 국제축구연맹(IFIFA) 월드컵 진품 트로피 공개 행사에 참석했던 홍 감독은 "중요한 선수들의 부상 등을 고려해 플랜B도 마련하고 있다"며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안산 경찰청 개막 3연승

K리그 챌린지 유일한 무패 팀...클래식 승격 순항 국가대표 출신들 9월 전역 전에 승점 쌓아놔야



안산 경찰청의 시즌 초반 기세가 무섭다. 안산 경찰청은 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2014' 3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수원FC에 3-0의 완승을 거뒀다. 개막 3연승으로 승점 9점을 획득한 안산 경찰청은 K리그 챌린지 10개 팀 가운데 유일하게 무패행진을 벌이며 선두 자리를 더욱 굳건히 했다.

K리그 챌린지 1위는 다음 시즌 K리그 클래식으로 올라갈 자격을 얻는다. 그러나 구단이 법인인 동시에 연고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경찰청은 올 시즌을 앞두고 안산과 연고지 협약을 맺고 프로팀으로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 4월에는 법인 등록도 마칠 예정이다. 현재와 같은 페이스를 유지해 K리그 챌린지 정상에 오른다면 2015시즌에는 K리그 클래식으로 승격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연고지가 없어 시즌 전 경기를 오로지 원정으로만 치르는 떠돌이 신세였던 경찰청 선수들에게 홈구장(안산 와스타디움)이 생겼다는 것 역시 긍정적 요소다.

안산 경찰청의 간판스타는 전 국가대표 정조국(30·사진)이다. 정조국은 5일 수원FC전 후반에 투입돼 연속골(후반 12분·50분)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견인했다. 안산 경찰청에는 또 서동현, 이용래, 박현범 등 국가대표 출신들이 즐비해 K리그 챌린지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변수는 시즌 말미인 9월 14명의 선수가 전역하면서 전력누수가 발생하는 점이다. 안산 경찰청 관계자는 "(군팀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K리그 클래식을 승격시키기 위해선 시즌 초반 페이스를 유지해 최대한 많은 승수를 벌여놓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의 홍정호(오른쪽)가 6일(한국시간) 임펠스아레나에서 열린 바이에른 뮌헨과의 홈경기에서 상대 미드필더 미첼 바이저를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다.

아우크스부르크(독일) | AP뉴시스

불턴 이청용 결승골 AS...시즌 5호 도움 아우크스 홍정호는 뮌헨 무패 우승 저지

불턴 이청용(26)이 시즌 5호 도움을 배달하며 팀 승리를 견인했다. 이청용은 5일(한국시간) 영국 더 존 스미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3~2014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 40라운드 허더스필드와의 원정경기에서 측면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다.

이청용은 0-0으로 맞선 후반 추가시간 오른쪽에서 절묘한 크로스로 조 마슨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했다. 경기 종료 직전 타진 이 골로 불턴은 3연승을 달리며 15위(11승 15무 14패)로 올라섰다. 이청용은 이날 어시스트는 2월 9일 본머스전 득점 이후 약 2개월 만의 공격 포인트다. 축구통계전문사이트인 후스코어드닷컴은 팀 승리에 공헌한 이청용에게 평점 7.8점을 주며 칭찬했다.

한편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의 홍정호(25)는 6일 임펠스 아레나에서 열린 바이에른 뮌헨과의 29라운드 홈경기에서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해 후반 30분 교체될 때까지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팀의 1-0 승리에 기여했다. 반면 올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을 일찌감치 확정된 뮌헨은 지난 시즌부터 이어온 53경기 무패행진에 종지부를 찍었다.

정지욱 기자

서울 "전북엔 지지 않는다" ...홈 6경기 연속 무패행진

전북, 이동국 진통제 투혼에도 상암징크스 전남 현영민 K리그 18호 '코너킥 직접골' 울산은 부산과 0-0로 비겼지만 선두 지체



FC서울이 '전북 현대 전 홈 무패행진'을 이어갔다.

<6R>

서울은 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4' 6라운드 전북과의 홈경기에서 전반 27분 타진 윤일록의 동점골에 힘입어 1-1 무승부를 거뒀다.

서울은 전북을 상대로 최근 홈에서 6경기 연속 무패행진(4승 2무)을 펼쳤다. 지난달 26일 제주 유나이티드전에서 리그 1호 골을 신고하며 팀의 리그 첫 승(2-0 승리)을 이끌었던 윤일록은 이날 다시 천금같은 동점골로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했다. 발가락 사이가 찢어져 세 바늘을 꿰맨 탓에 출전이 불투명했던 간판스타 이동국이 진통제를 맞고 출장하는 등 전북은 주축 선수들의 투혼 속에서 선취점을 올렸지

만 '상암 징크스'를 깨지 못한 채 승점 1점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전북 레오나르도는 전반 3분 페널티킥 선제골을 성공시켰다. 전북은 3승 2무 1패, 승점 11로 2위를 달렸다.

광양에서 벌어진 '제철 더비'에선 전남 드래곤즈와 포항 스틸러스가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전남은 3승 2무 1패로 3위, 포항은 3승 1무 2패(승점 10)로 4위를 기록했다. 홈팀 전남은 전반 43분 현영민의 코너킥이 그대로 골망을 흔들며 기선을 제압했다.

현영민의 골은 K리그 통산 18번째 '코너킥 직접골'로 기록됐다. 후반 들어 반격에 나선 포항은 6분과 30분 김재성과 이명주의 연속 골로 경기를 뒤집는 폭심을 보였다. 전남은 후반 34분 이종호의 동점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선두 울산 현대는 부산아시아드경기장에서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의 원정경기에서 90분간 열띤 공방을 주고받았으나 득점 없이 비겼다. 울산은 4승 1무 1패, 승점 13으로 1위를 지켰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전북 현대 이동국(왼쪽)이 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6라운드 원정경기에서 FC서울 오스마르와 볼을 다투고 있다.

상암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트위터 @beanjiun

포항 '토종 축구'에 맞불 카드 꺼낸 전남

■현장리포트

실력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지만 의미는 충분했다.

전남은 6일 광양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포항과의 K리그 클래식(1부리그) 6라운드 홈경기에서 2-2로 비겼다. 두 구단의 모기업 이름을 따

'포스코 더비'로 명명된 승부. 동승 전남은 간절했다. 형님 포항을 꼭 이기고 싶었다. 포항이 지난해 정규리그와 FA컵에서 더블(2관왕)을 이룰 때, 전남은 강등싸움을 펼쳤다. 게다가 전남에는 트라우마도 있었다. 유독 포항에 약했다. 2010년 7월부터 홈 3연패를 포함해 최근 홈 4경기 무승(1무 3패)이었다. 대개 1골차 패배여서 아쉬움은

유독 포항에 약했던 전남의 과감한 실험 용병 빼고 붙어 2-2...결속력 확인 성과

더욱 짙었다.

개막 2연패 후 3연승으로 상승세를 타던 포항을 안방으로 불러들인 전남 하석주 감독이 내놓은 이날의 히트카드는 '토종축구'였다. 포항이 외국인 선수 없이도 선전하는 것에서 착안했다. 땀땀한 일정 탓에 몇몇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줄 필요성도 느꼈지만, 젊은 국내 멤버만으로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강팀과 승부할 때는 오히려 조지력으로 맞서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판단도 했다.

용병을 뺀, 익숙지 않은 상황에 혼란을 느낄 수 있는 선수단에 긍정적 자극을 주는 것은 물론 필수. "포항도 너희와 비슷하다. 나이도, 경험도 뒤질 게 없다. 너희들이 똥전다면 못할 게 없다"며 힘을 불어넣었다. 실제로 포항에 포철중-포철고로 이어지는 국내 최고 유소년 시스템이 활성화돼 있다면, 전남에도 광양제철중-광양제철고라는 최적의 선수육성 시스템이 있어 많은 프랜차이즈 스타들을 배출하고 있다.

전력은 거의 통했다. 전반 43분 현영민이 선제골을 넣었고, 1-2로 뒤진 후반 34분에는 이종호가 동점골을 터뜨렸다. 전남은 후반 18분 마케도니아 공격수 스테보를 교체 투입할 때까지 토종으로 구성된 포항에 토종으로 맞섰다. 대등한 양상이었다. 경기 후 하 감독은 "국내선수들끼리 나섰어도 별 걱정 없는 좋은 게임을 했다. 선수들의 단결과 협동심을 믿었다"며 만족스러워했다.

광양 | 남정현 기자

편진 | 박재원 기자 parky@donga.com 트위터 @parkyoon